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조경완



제임스 브라운이 죽었다. 성탄절 새벽에, 일흔 셋. 오랜 친구 한 명이 떠나...

'What'd I Say'의 탄생과정은 완전한 애드립이었다. 예정된 곡을 마치고 공연장...

"알비인 러빈유우(I've been lovin' you)" 이름처럼 유난히 '브라운'색이던 얼굴에...

아 단순한 4박자의 곡을 반복해 두들긴다. "헤이 업마, 야단쯤 치지 말아요, 아빠...

천재성 드러나는 즉흥연주

소울은, 또는 재즈란 애드립의 환연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악보에 없는, 그래서 예측불...

애드립은 이랬어 좋다. 본딴말인 라틴어 '아드 리비툼'에서 리비툼이 뭔지. 바로...

애드립, 감흥 혹은 당혹

고난도의 연주기법을 선사한다. 탄식과 박수, 휘파람 소리마저 곡의 일부가 된다.

문이다. 대통령의 애드립이 세밀을 더욱 어수선하게 하고 있다. 자신을 지지해주지 않는...

대통령, 울분 있다지만

그러나 넘쳐 버렸다. "시간 괜찮습니까? 애기 좀 더 할까요?"하면서 그는 저...

그 표현이 아무리 자주국방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국민은...

그런데, 조용할 날 없는 대한민국의 한해는 또 이렇게 시끄럽게 저문다. 제임스 브라운의 음반이나 한 장 사갖고 퇴근해야...

〈편집부국장〉 kycho@kwangju.co.kr

시설

나라가 온통 '막말 잔치' 경연장인가

내년 대선 정국을 앞두고 각계각층의 갈등과 반목이 재연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그동안 제가 공격을 받아 왔으나 참아 왔다"

군 수뇌부는 성명에서 노 대통령의 연설이 "우리 국민과 국군, 헌법을 모독하고 신성한 국방의무를 폄하했다"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은 '통합신당과'와 당 사수파로 나뉘어 국정현안을...

최근 정국을 보노라면 모두 대권 놀음에만 매달려 '내 편', '네 편'으로 갈라...

호남지지도 오른 한나라당의 한계와 과제

한나라당이 본보가 최근 광주·전남 지역 주민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13.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라당의 호남 겨안기는 대선주자들과 경쟁 세력 대표 등 지도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1.4%로 선두였다. 열린우리당은 16.9%에 그쳤고...

한나라당의 호남 겨안기를 정치적 행위로 깎아내릴 일은 아니다. 지역구도...

한나라당 지지도가 의미있는 변화를 보일 원인은 몇 가지 추론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40%가 넘는 당 지지율을...

문제는 진정성이다. 민정당과 민자당, 신한국당에 뿌리를 둔 한나라당이...

호남 겨안기 효과도 볼 수 있다. 한나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차영호



순수공연예술(연극) 관객 왜 줄어드나! 새로운 천년이 열리지 6년째가 저물어가고 있는 지금, 지역의 순수공연...

대 과학을 이용한 창의적인 무대 기술로 관객을 사로잡아야 한다. 저 연극에는 '뭔가 새로운 것이 있구나'

세상은 지금 변화의 바람에 휩싸여 있다. 특히 문화 전반의 변화는 따라잡기 힘들만큼 속도가 빠르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데 연극계 관행은 충고 배고프던 1960년대 그것들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 준비하듯

정도로 변화하고 있다. 영상은 물론이고 인터넷과 IT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새로운 콘텐츠들이 쏟아져...

리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는 한 관객들은 점점 멀어질 것이다.

순수공연예술, 특히 연극은 잃어버린 관객을 되찾기 위해서는 변화의 물결은 타야한다.

새해에는 재미있으면서도 기계화로 매마른 인간 심성을 되살리는 작품이 나오길 바라면서, 연극을 비롯한 순수...

끊임없는 도전과 실험, 그리고 타 장르와의 융합과 공존의 노력 없이는 관객에게 새로움을 주기 어렵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신나는 마음으로 열정을 쏟으면 무한한 사랑이 되돌아오듯 관객 입장에서 관객 눈으로 작품을 만들고 관객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은펜칼럼은 매월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실는 코너입니다.

목욕탕에서까지 오이 마사지 꼭 해야하나

목욕탕에서 피부 미용에 신경쓰는 사람들이 불 때마다 자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등을 바른 뒤 그 응기를 그대로 놓아두고 가는 사람들도 많다. 왜 공중목욕탕에 와서 이런 행위를 할까?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기고

전갑길



최근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용어가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런된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한 우리나라도 2000년에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설치됐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관심을

이라고 정의함으로써 공식화됐다.

도시대상'평가에서 친환경부문 대상을 차지한 것은 광주·전남권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있어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근대화의 후발주자로서 선진국들을 따라잡기 위해 강력한 중앙집권으로 지역적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이들 위해 지역주민·사회단체·차세대단체의 상호협력과 적극적 참여 등 미래세대를 고려한 발전정책인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편의점내에선 담배 피우지 말았으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편의점이 사거리에 위치해 있어 드나드는 손님이 많은 편인데,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들어오는 남자 손님들중 상당수가 담배를...

해를 구하는 손님은 그렇다치고 아예 아무런 거리낌 없이 손에 쥔 것도 모자라서 입에 물고 담배를 빨고 있는 손님을 보면 화가 나기도 한다.

간단한 물건만 대충 사서 나가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본인은 잠깐 머무르니 상관없는지 모르겠지만 담배 냄새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

물건을 사러 들어온 여성 고객님들이 이 맛살을 찌푸리다 나가시는 경우도 있어서 내가 한번은 "담배를 꺼주시고 들어오세요"라는 안내문을 붙이기까지 했다.

Advertisement for Kwangju Ilbo (光州日報) featuring a 'No Equal' (無等鼓) campaign. It includes text about environmental issues, a photo of a person,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